

GOS
12월 첫째주

[순모임 교재 - The Sent 365]

고난 받는 하늘 백성

욥기 25:1 - 26:14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 슬픈 마음 있는 사람(찬송가 91장, 구 91장)
- 지난 한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12월의 주제는 ‘뜻대를 향하는 하늘 백성’입니다(1주 ‘고난받는 하늘 백성’, 2주 ‘탄식하는 하늘 백성’, 3주 ‘말씀 앞에 선 하늘 백성’, 4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하늘 백성’, 5주 ‘뜻대를 향하는 하늘 백성’).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지만, 극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빌닷은 욥에게 불의를 인정하고 고난을 수용하라고 충고하지만, 욥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고난에 던지신 현실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까닭 모를 고난으로 욥의 고뇌는 깊어갑니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빌닷은 하나님의 위엄을 내세우면서 욥의 불의를 지적하려 합니다(25:1-6).

- 1) 빌닷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1-3절)?
- 2) 하나님의 속성을 진술하는 빌닷의 의도는 무엇입니까(4-6절)?

나눔1

빌닷의 말은 욥에게 적절하지 않았지만, 그의 발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움과 정결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광, 능력, 거룩함, 의로움 면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식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2. 욥도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만 배려 없는 친구의 말이 야속할 뿐입니다(26:1-14).

- 1) 욥은 빌닷의 날카로운 진술에 어떻게 답합니까(1-4절)?
- 2) 욥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 어디까지 닿았다고 말합니까(5-9절)?
- 3) 욥은 하나님이 어떤 세력까지 통제하신다고 말합니까(10-14절)?

나눔2

빌닷의 신학이 옳을지 몰라도, 욥을 향한 그의 발언은 옳지 않았습니다. 옳은 신학이 누군가에게 비수가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나눔3

욥도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자신만 소외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지 않으시고, 날 위해 능력을 베풀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낀 때가 있었습니까?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 무고한 사람을 정죄하는 데 말씀을 오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공동체 |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소서.